

2023. 11. 14.(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디자인재단 홍보팀

전시1팀

홍보팀장	권 희 대	02-2096-0020
담 당 자	신 두 열	02-2096-0025
전시1팀장	유 주 이	02-2153-0061
담 당 자	오 경 하	02-2153-0068
관련 홈페이지	www.ddp.or.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1쪽

## 전쟁, 에너지, 환경, 수명, 금융의 뜨거운 데이터로 말하는 <Now Is Better: 지금이 더 낫다> DDP 전시

- 독특한 세계 선보이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전시 오픈
- 지난 200년간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아트 전시
- 전쟁, 에너지, 금융, 면적 등 흥미로운 데이터를 통해 인류 발전 양상 그래픽으로 표현
- 특별 제작된 서울에디션과 DDP에디션 포함, 최신작 100여 점 국내 최초 공개

세계적인 디자이너 스테판 사그마이스터(Stefan Sagmeister)의 <Now is Better : 지금이 더 낫다> 전시가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잔디사랑방에서 펼쳐진다.

○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디자이너다. 동시에 본인 스스로를 디자인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아 ‘행복’(‘Happy Show’ 2012), ‘아름다움’(‘Beauty Show’, 2018)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다. 이번 <Now is Better : 지금이 더 낫다> 전시는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해 ‘지금 이 더 나은 세상이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100여 점의 작품에 담았다.

-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는 지난 50년에서 200년 사이의 삶의 질, 기대수명, 죽음, 빈곤, 범죄율, 온실가스 배출 등의 글로벌 이슈와 연관된 유의미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시각을 표현한 혼합매체 작품 시리즈를 제작했다.
  -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밝은 면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 전시에서 선보이는 디자인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새로운 정보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15년에는 세계적으로 번개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50명이었다면, 100년 후인 2015년에는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 전기 시스템, 그리고 안전 장비의 발전 덕분에 단 1명의 사람만이 사망했다. 작가는 이처럼 흥미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 전시에 선보인 데이터들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작품 ‘Two Markets’은 2가지의 도형을 통해 연간 501억 달러 규모의 미술 시장이 얼핏 거대해 보여도 503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기저귀 판매량보다 적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또한 ‘Gimme Space’는 10만 달러로 두바이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의 면적 ( $13.2m^2$ )과 맨하탄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의 면적( $6.0m^2$ )을 비교한다. 서울의 부동산 시세와도 견주어봐도 흥미롭다.
  - 데이터는 혼합매체를 사용해 다양한 크기의 회화, 대형 렌티큘러 프린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캔버스, 의류, 컵, 손목시계 등 3D 제품으로도 제작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념품용 포스터는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이 직접 한 장씩 뜯어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특별히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전시를 위해 한국의 데이터를 적용해

제작된 서울에디션 작품과 DDP 관람객 수치 데이터로 만든 DDP에디션 포함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 실내 전시와 더불어 9월25일부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잔디언덕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작품 〈We'd rather be alive than dead:삶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보다 아름답다〉도 12월31일까지 같이 야외에서 관람할 수 있다.

□ 전시 기간 동안에는 작가의 디자인 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행복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실험들을 엿볼 수 있는 〈Happy Film〉영상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둘레길라운지에서 12시부터 2시간마다 상영된다. 이 작품은 사전예약을 통해 볼 수 있다.
- 전시가 시작되는 11월 17일 DDP 디자인홀에서 진행되는 〈DDP 포럼 VOL.37〉에서는 ‘Beautiful Numbers(아름다운 숫자들)’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 강연에서 그의 디자인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다.

□ 서울디자인재단의 이경돈 대표이사는 “데이터를 통해 얻은 작가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작가의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밝은 미래를 그려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붙임1. 전시 개요.

2. 주요 작품.

3. 전시 포스터.

4. 작가 이미지.    끝.


**붙임1 전시 개요**





<b>전시기간</b>	2023. 11. 17(금) ~ 2024. 3. 3(일) ※야외전시(잔디언덕) 작품은 2023.12.31.까지 운영
<b>관람시간</b>	화~일 10:00~20:00(월요일, 설 당일 휴관) ※야외전시(잔디언덕) 작품은 12:00~20:00 운영
<b>장소</b>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잔디사랑방, 잔디언덕
<b>주최/주관</b>	서울디자인재단
<b>입장권</b>	무료
<b>전시소개</b>	-Website: <a href="https://ddp.or.kr/index.html?menuno=240">https://ddp.or.kr/index.html?menuno=240</a>
<b>부대행사 사전신청</b>	-DDP 포럼 VOL.37 'Beautiful Numbers(아름다운 숫자들)' 사전신청: <a href="https://ddp.or.kr/index.html?menuno=241">https://ddp.or.kr/index.html?menuno=241</a> -'Happy Film' 영상 상영 사전신청: 준비 중

## 붙임2

## 주요 작품

● 해당 이미지는 전시 홍보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권 표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o.	이미지	내용
1		<p><b>예술가들, 법률가들, 그리고 의사들, 2023.</b> 미국내 예술가, 법률가, 의사의 수</p> <p>250만명- 예술가들 130만명- 법률가들 90만명- 의사들</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2		<p><b>나의 집, 2023</b>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p> <p>1900년- 47퍼센트 2020년- 64퍼센트</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3		<p><b>부자와 가난한 사람, 2023</b> 실제로 빈곤하거나 빈곤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인구의 비율</p> <p>윗쪽 삼각형(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020- 전세계 인구의 9%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5- 전세계 인구의 25%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1990- 전세계 인구의 35%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p> <p>아래 삼각형(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2%- 지난 30년간 빈곤률이 개선되었다고 믿는다. 33%- 지난 30년간 빈곤률이 그대로라고 믿는다. 55%- 지난 30년간 빈곤률이 낮아졌다고 믿는다.</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4		<p><b>냄새나는 부자 2, 2023</b> 2020년 조사에 따른 지난 세기 부자였던 사람의 자산을 2022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장 부자인 사람</p> <p>3310억 달러- 존 D. 록펠러 3210억 달러- 앤드류 카네기 2020억 달러- 일론 머스크 1150억 달러- 제프 베조스</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5		<p><b>밝은 조명들, 2023</b> 한 시간의 빛을 얻기 위해 일해야 했던 시간(1800/ 1850)</p> <p>1800 - 한 시간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6시간의 일 1850 - 한 시간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2.5시간의 일</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6		<p><b>내가 숨쉬는 공기, 2023</b> 인구 10만 명 당 전 세계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1990-2018)</p> <p>2018- 94명 2014- 102명 2010- 110명 2006- 118명 2002- 126명 1998- 134명 1994- 142명 1990- 150명</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7		<p><b>파이의 조각들, 2023</b> 발전소 수명주기동안 전기 기가와트 당 온실가스 배출량</p> <p>820톤- 석탄 720톤- 석유 490톤- 가스 34톤- 수력 5톤- 태양열 4톤- 풍력 3톤- 핵</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8		<p><b>또 하나의 전쟁, 2023</b> 강대국이 서로 싸웠던 해의 비율</p> <p>1543- 95% 1586- 95% 1629- 100% 1672- 90% 1715- 85% 1758- 38% 1801- 62% 1844- 20% 1887- 10% 1930- 20% 1973- 15% 2016- 0%</p> <p>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 붙임3 전시 포스터

● 해당 이미지는 전시 홍보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권 표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내용
	<p data-bbox="1123 1039 1353 1122">&lt;Now is Better&gt; 전시 포스터</p> <p data-bbox="1070 1193 1262 1265">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p>

● 해당 이미지는 전시 홍보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며, 저작권 표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  
지



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

**내용**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Stefan Sagmeister, 1962)는 뉴욕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빈 응용미술대학(university of Applied Arts) 에서 MFA를 수료하고 뉴욕의 저명한 프랫 인스티튜드(Pratt Institute)의 풀브라이트 스칼러(Fulbright Scholar)로 석사를 수료했다. 그가 2011년 제시카 월시(Jessica Walsh)와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Sagmeister & Walsh는 구겐하임, 롤링스톤 잡지, HBO사 등을 크라이언트로 작업했으며 7년을 일하면 1년의 안식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 대한 TED 강연으로 유명하다.

그는 Lou Reed, The Rolling Stones, David Byrne, Jay Z, Aerosmith, Talking Heads, Brian Eno 등 유명 팝스타들의 앨범 커버를 디자인했으며,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앨범 패키지 부분에 8번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2회 수상한 경력이 있다.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 포함 그의 2012년 멀티미디어 전시 'The Happy Show'는 ICA 필라델피아, LA 현대미술관 등 유수 미술관과 디자인 센터를 순회했고, 2018년에는 'The Beauty Show' 전시로 비에나,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 유럽 주요 도시 미술관을 순회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 모마,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요 수상내역]**

2005년 / 그래미어워드 Best Boxed or Special Limited Edition Package 수상  
 (Talking Heads - Once in a Lifetime)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박물관 내셔널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0년 / 그래미어워드 Best Recording Package 수상  
 (David Byrne and Brian Eno - Everything That Happens Will Happen Today)

2013년 / 오스트리아 공화국 명예 훈장 수상

**[주요 전시이력]**

2000년 / Design Biannual,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박물관, 뉴욕

2001년 / Stealing Eyeballs, 쿤스틀러하우스, 비엔나  
 개인전, 갤러리 프레데릭 산체스, 파리

2002년 / 개인전, 빈 응용미술 박물관, 빈

2003년 / 개인전, 취리히 디자인 박물관, 취리히  
 개인전, DDD 갤러리,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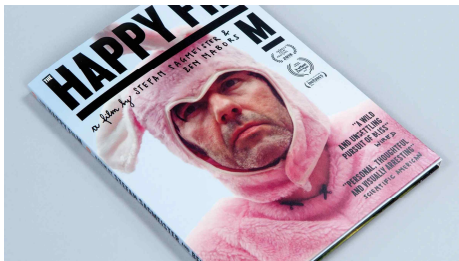
2012년~2015년 / The Happy Show, 필라델피아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미술관 외

2018~2019년 / Sagmeister & Walsh: Beauty, 빈 응용미술 박물관, 빈

2019~2022년 / Sagmeister & Walsh: Beauty, 프랑크푸르트 외

2021년 / Beautiful numbers, 토마스 에르벤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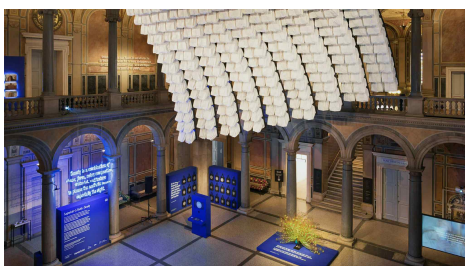
대표  
프로젝트



**1) Happy Film**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는 어떤 사람이 그들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의 힘을 빌린다. 전문가의 감독 아래 그는 조정, 치료, 그리고 약이라는 세 번의 통제된 실험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 과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예술, 죽음, 성관계, 우정, 그리고 연애의 증거들을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무나 급상승하고 일상적인 내용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 스테판의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질문들에 대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집착을 예리한 초점과 높은 안도감을 통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

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



**2) Beauty**

사그마이스터와 월시는 아름다움의 개념을 다루는 시각 멀티미디어 전시회를 만들었다. 그 전시회는 왜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의 분야들의

예를 들어 아름다운 물체들, 건물들 그리고 전략들이 더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름다운 형태들이 기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은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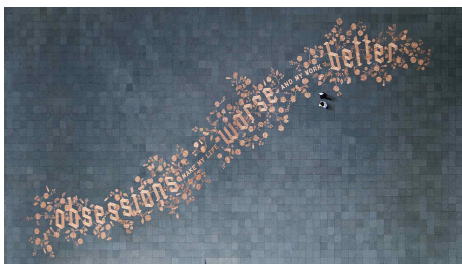
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



### 3) Banana Wall, Deitch Project

뉴욕의 Deitch Projects에서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서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는 만 개의 바나나로 만든 벽을 선보였다. 녹색 바나나는 노란색 바나나를 배경으로 패턴을 만들어 “자신감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는 텍스트를 전달한다. 며칠 후에 녹색 바나나도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글씨와 배경의 차이는 사라지고, 노란색 배경 바나나가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 텍스트는 다시 나타났지만 모든 바나나가 갈색으로 변했을 때 다시 사라진다.

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



### 4) Obsessions make my life worse but my work better

2008년 9월 13일 사그마이스터는 암스테르담의 Waagdragerhof 광장에 250,000 유로 센트의 설치를 시작했다. 8일 동안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동전들은 4가지의 다른 색으로 분류되었고, 이 300 평방미터의 공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그 동전들은 광장 바닥에 "집착은 내 삶을 더 나쁘게 만들지만 내 작업을 더 좋게 만든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되었다. 완성된 후, 동전들은 대중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시되었고 경계가 세워지지 않았다. 개장한지 20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 지역 주민은 어떤 사람이 동전들을 봉지에 넣고 가져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제작되는 것을 지켜보던 디자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경찰을 불렀고, ' 예술 작품을 보존 ' 하기 위해 경찰은 남아 있는 모든 동전을 쓸어 담았다.

사진제공/ Stefan SAGMEISTER